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Ⅱ)

- 빅토리언 드레스(Victorian Dress)의 설계 및 의장 분석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김 문 숙 외 18명¹⁾

目 次

I. 서론	V. 빅토리언 드레스의 비교 분석
II. 시대적 배경	1. 스타일(Style)의 비교 분석
III. 제작 기회	2. 색상과 소재의 비교 분석
IV. 빅토리언 드레스의 제작 및 실제	3. 패턴(Pattern)과 바느질법의 비교 분석
1. 1839~45년 데이 드레스(Day Dress)	4. 장식기법의 비교 분석
2. 1882~83년 디너 드레스(Dinner Dress)	VI. 결론
3. 1895년 데이 드레스(Day Dress)	참고문헌

I. 서 론

반복 되어져 나타나는 현 시대 패션 흐름에서 과거 의상의 고찰은 개성과 창의성이 내재된 의상 디자인 창조에 무한한 영감의 출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거 의상의 수집, 복원 및 복제(Rehabilitation)에 의한 의상 연구를 통하여 보아진 자료를 의상 디자인 발전의 기초적인 토대로 삼아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복식의 실물 제작 차원의 의상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이를 보완하고 전시할 장소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존의 과거 의상을 실물 제작하여 복제하여 봄으로써 문현상의 간접적인 연구에서 실증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의상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적인 연구 과정을 통하여 과거 의상의 디자인(Design) 및 디테일(Detail) 등의 변화를 고찰하여 서양 의복의 이해를 돋고자 하며, 그 표현 기법을 재조명하여 의상 분야의 관련자에게 디자인의 창조력을 북돋울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과거 의상의 실물 제작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와 문현상의 간접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실물 제작을 위한 과거 의상의 시대는 특징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현대의 모든 디자인 분야에 그 특징이 빈번히 재현되어지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Victorian era)로 선정하고 있다. 원형에 일치하도록 제작 복제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소재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드레스를 우선 선택하며, 그 시대의 대표적 스타일을 지니고 비교적 제작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1) 지도교수 : 김문숙

연 구 원 : 김순희, 오현남, 조숙현, 최은정A, 최은정B, 강정아, 김명주, 김수현, 윤희정, 임수연, 장지선,
소영미, 옥혜정, 조정아, 김의경, 김현주, 전혜영, 한성지

것을 선택한다. 또한 드레스의 용도 차이에 의해 드레스의 구조나 장식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 되어지는 데이 드레스와 디너 드레스를 선택한다.

이상의 조건에 따라 선정된 3별의 드레스-1839~1845년의 데이 드레스(그림 1 참조), 1882~1883년의 디너 드레스(그림 7 참조), 1895년의 데이 드레스(그림 14 참조)-스타일(Style)의 고찰과 함께 제작 구조상의 패턴, 소재, 바느질법, 장식 기법으로 의상의 제작법을 살펴보려 한다. 패턴 및 그에 따른 바느질법은 Janet Arnold가 쓴 「Patterns of Fashion 1·2」에 기초를 두며, 그 외에 제작상에 관련된 소재와 그 시대의 특징적인 기법은 그와 관련된 문헌과 빅토리언 시대의 3점의 유물(Jacket, Bodice, Skirt)을 참조하고 있다.

작업을 함에 있어 문헌에 실린 소재와 구성 방법에 준하려 노력하였으며, 고전물의 소재를 현재의 소재로 대치함에 있어서, 또한 의상 이외에 그에 따르는 부속품-그 시대 여성의 체형에 맞는 드레스 폼(Dress form), 속옷, 그 밖의 장식품-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자료와 연구에 한계를 느끼며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II. 시대적 배경

과거 의상의 실물 제작을 위하여 선정된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 왕위에 오른 후 1901년까지 통치²⁾하였던 기간으로, 19세기 전반을 '빅토리언(Victorian)'이라 여길 만큼³⁾ 사회·경제적으로 안전과 번영을 이루며, 미술, 음악, 문학 등에 있어서 여왕의 분위가 고취되어졌다.⁴⁾

본 연구회는 Douglas A. Russell⁵⁾의 시대 구분에 의하여, 1839~45년의 데이 드레스는 초기 빅토리언 시대, 1882~83년의 디너 드레스와 1895년의 데이 드레스는 후기 빅토리언 시대의 것으로 구분짓고자 한다.

초기·후기 빅토리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초기 빅토리언 시대에는 1815년부터 1848년 정치적으로 나폴레옹이 실각하여 추방당한 후 루이 18세(C 1814~1824)의 왕위 복귀와 함께 보수적인 경향을 띤 1814년의 Vienna 회의에서 혁명 전에 존재하였던 구군주 및 귀족 제도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후 30년간의 정치적 상황은 복고적인 군주제도를 폐지하려는 자유적, 급진적, 낭만적 시도 위에 기초하였다.⁶⁾ 이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격동 속에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은 비속한 실제 현실에 반하여 정서적으로 감성 중심의 낭만적 양식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혼란의 시대는 지나가고 1870년부터 1890년의 후기 빅토리언 시대에 와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산업발전에 의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원료 공급의 확보를 위해 식민지 쟁탈을 하였으나,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시기였다.

시대적 사조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출발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한 사실주의(Realism)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었다.

1846년 Elias Howe의 롤-스티치(Lock-Stitch) 특히 이후 재봉틀(Sewing-Machine)의 일반적인 사용은 185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외복의 대량 생산에 대한 개념이

2) Caroline Goldthorpe, 「From Queen to Empress : Victorian Dress 1837~1877」, Harry N. Abrams, Inc., 1988, p.12

3) Penelope Byrde, 「Nineteenth Century Fashion」, B.T. Batsford Limited, London, 1992, p.16

4) Caroline Goldthorpe, op.cit. p.1

5) 본 연구회가 제작한 드레스의 시대구분은 Douglas A. Russell의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에서 소개된 시대구분을 따르고 있다.

6) Ibid., p.330

7) Penelope Byrde, op.cit., p.131

소개 되어졌으며⁸⁾, 기성복의 산업화를 재촉하였다. "The Gilded Age"⁹⁾라 불리울 만큼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에서는 기성복 산업이 현저히 발전하였다.

1890년에서 1911년 사이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은 에드워드(Edward : C 1901~1910) 국왕 시대에 해당하는 후기 빅토리언 시대이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철학적 합리주의 정신에 호응하면서 19세기 후반의 시대 사조를 크게 지배했던 사실주의는 이 시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 예술가와 지식인은 거의 한 세기동안 지속되어왔던 무의미하고 솜씨없는 절충주의(Eclecticism)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에 기본을 둔 스타일을 원했다.¹⁰⁾

이 시대 여성은 세기말로 갈수록 이전 시대의 여성보다 많은 자유와 사회활동을 즐겼다.¹¹⁾

III. 제작 기획

의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서양복식에 대한 실물 제작 차원의 분석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행 되어진 적이 없으며, 근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구의 동향 또한 미미한 것에 통감하여 1990년 5월 김문숙 교수 지도하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의장 연구회에서는 과거 의상의 실물 제작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제작 과정상의 실물 자료를 근거로 빅토리언 드레스의 설계 및 의장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며, 그러한 시도에 있어 제작의 기획 및 실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 제작의 전 단계를 수록해보고자 한다.

1. 선정된 드레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작 계획을 기획하기 위해 문현상의 시네적 배경을 알아보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의 스타일, 주색상, 강조 색상, 주소재, 부소재, 바느질법, 사용된 장식의 기법과 그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2. 드레스가 이루고 있는 패턴의 형태와 수를 파악한 후, 1" 모눈종이를 만들어 그 위에 Janet Arnold著 「Pattern of Fashion · 2」에서 선정된 1/8"로 축소되어 있는 패턴을 본 크기로 그대로 환원시킨다. 이와 동시에 드레스에 사용될 소재 구입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한다.

3. 환원시킨 패턴의 치수 및 각 패턴 간의 조합 확인, 바느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머슬린(Musline)으로 예비 제작을 하여 본다. 또한 예비 제작 결과 소재의 필요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4. 재단 과정이다.

5. 바느질 과정이다.

6. 정리 단계로, 본 논문에는 수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드레스 품, 베임대, 페티코트(Petticoat) 등을 각 드레스의 스타일에 맞도록 제작한다. 이 과정은 본 연구를 함께 있어 부수적인 부분이지만 제작된 드레스의 실루엣(Silhouette)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IV. 빅토리언 드레스의 제작 및 실제

본 연구회에서 제작한 빅토리언 드레스는 Janet Arnold의 「Patterns of Fashion」에서 1/8"=1"로 축소되어 있는 패턴의 크기를 원형 그대로의 크기로 복원시킨 것으로, 영국에 소재한 의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형에 일치하도록 제작 복원된 것이다. 이 세별의 드레스는 각 시기에 따른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드레스의 특징이 상이하게

8) Douglas A. Russell, op.cit., p.358

9) The Gilded Age : "19세기 말의 미국의 호황 시대"를 일컬음.

10) Douglas A. Russell, op.cit., p.387

11) Nancy Bradfield A.R.C.A. 「Costume In Detail - Women's Dress 1730-1930」, Plays Inc., Boston, 1985.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드레스의 스타일과 구조상의 패턴, 소재, 바느질법, 장식기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 게재되는 그림은 재현 제작에 의한 실물도이다.

1. 1839~45년 데이 드레스

① 스타일 분석

드레스는(그림 1, 2 참조) 몸에 꼭 맞는 바디스(Bodice)와 둠(Dome) 형태의 스커트가 허리선에서 연결된 원피스(One-Piece) 형으로 초기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¹²⁾에 해당한다.

이 드레스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V자형의 깊게 파인 목선, 가는 허리선, 앞 중심의 대각선 주름 장식, 넓은 치마단, 드롭 숄더(Dropped Shoulder)가 있으며, 이는 어깨를 넓게 허리는 가능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스타일은 X-형¹³⁾ 실루엣으로 1830년대의 여성의상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1830년대 초기 여성의 의상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가는 허리와 부풀린 스커트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매 윗부분을 기교적으로 부풀렸다. 그러나 1837년경에 출현한 직선 소매는 초기 소매의 봉괴를 보여주며¹⁴⁾, 지나치게 넓은 소매통이 이후부터 차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회에서 제작된 드레스는 윗부분에 부풀림이 없는 두 조각의 긴 직선 소매가 달린다.

스커트의 부풀림을 위해서는 허리에서의 충분한 주름과 몇 겹의 뱃랫한 페티코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39~45년 사이의 데이 드레스는 복식사 구분에 있어 로맨틱 시대



그림 1.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C 1839~45)



그림 2. 재현 제작에 의한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

후반기에 이은 초기 빅토리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림 1은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의 뒷면과 앞면의 스타일로 그 원형은 「The Gallery of English Costume」¹⁵⁾에 소장되어 있다.

12) Ibid., p.162

: “첫번째 크리놀린은 둠 형태를 지니며, 1860년대로 감에 따라 단의 폭이 넓어져 갔다. 1862년 경에는 크리놀린이 비교적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3) Jean L. Drouesdow, 「In Styl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30

14) Nancy Bradfield A.R.C.A., op.cit., p.166

15) Ja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1」,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72. p.66.

그림 2는 재현 제작에 의한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이다.

② 색상과 소재 분석

사용된 색상은 진한 베이지(Beige)의 은은한 색조이다.

사용된 소재는, 겉감으로는 부드러운 광택 처리를 한 실크(Silk)와 캐시미어(Cashmere)의 혼방 직물이며, 안감으로는 하얀색의 면을 사용한다.

이 시기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의상 스타일에 비해 이 드레스는 기본 바디스에서부터 장식 부분까지 모두 베이지 색상에 의한 단색 처리 및 실크와 캐시미어의 혼방직물 한 가지 소재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형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함에 의한 것이라 본다.

③ 패턴과 바느질법 분석(표 3 참조)

좌우 대칭형 패턴은 크게 바디스, 스커트, 소매, 장식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바디스는 앞 바디스 허리선에 두 개의 다아트(Dart)와 뒷 바디스의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만을 이용한 몸에 꼭 맞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앞 바디스는 중앙에 작은 타원형의 조각판이 없혀진 주름 장식판이 놓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2피스(Piece)로 나뉘어진다. 뒷 바디스는 중심에 트임이 있어 크게 2 피스로 분리되고 이것은 다시 프린세스 라인에 의해 나뉘어진다.

V자형으로 깊고 넓게 파인 목선으로 인해 좁아진 어깨폭을 드롭 솔더로 만들어 줄으로써 어깨폭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준다.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의한 실루엣에 있어서는 둠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약 17 1/2" 폭의 직사각형을 앞 중앙에서 꼽으로 접은 1 피스와 연이어 좌우 3피스씩을 이은 다음, 허리 부분은 바디스의 허리선에 맞추어 1/8"의 카트리지(Cartridge) 주름(그림 3 참조)을 잡는다. 좁아진



그림 3. 1/8"의 카트리지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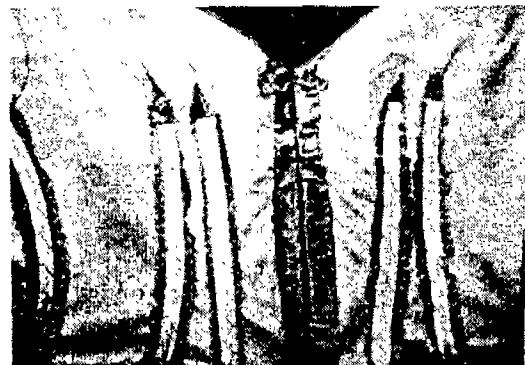


그림 4. 데이 드레스의 내부도

허리선과는 대조적으로 단 부분은 변화없이 이어진 폭 그대로를 사용한다.

소매는 탑(Top)과 언더(Under)의 2 피스 패턴에 의해 팔에 꼭 맞는 긴 직선 소매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패턴(Pattern)으로 연결된 드레스의 주된 바느질법은 손바느질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회에서 제작된 3벌의 드레스 모두는 현대의 겉감과 안감의 분리식 바느질법과는 다르게 겉감과 안감이 솔기부분에서 함께 박아진다. 박고 난 솔기는 가름솔을 하거나 한쪽으로 넘기고 솔기

시접과 본(Bron)을 감싼 직물의 양 측면을 손바느질로 오가며 중앙에 벌집 모양이 생기도록 튼튼히 고정시킨다(그림 4, 10 참조).

또한 드레스에 사용된 특징적인 바느질 중에는 파이핑(Piping)(그림 5 참조)이 있다. 이는 솔기 사이에 집어 넣어서 함께 박음으로 장식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목선과 소매단과 같은 가장자리의 시접처리를 위한 효과도 있다.

그림 3은 카트리지 주름의 견본이다. 이 주름은 탄환을 장착하는 벨트에서 온 명칭으로 통모양과 같은 주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를 말한다.¹⁶⁾

그림 4는 데이 드레스의 내부도로, 결감과 안감의 통합식 시접처리 방법과 본을 댄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5는 데이 드레스의 측면으로, 솔기에 파이핑이 박혀진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5. 파이핑 바느질법

④ 장식 기법 분석

로맨틱 시대에 있어 여성의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가슴 중앙의 대각선 주름판을 이 드레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옆으로 길쭉한 조각에 주름을 잡아 장식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역할을 하는 뻣뻣한 머슬린을 아랫면에 대여주며, 이를 위한 패턴에는 2-다아트가 있어 주름 장식판이 가슴에 입체적으로 밀착 되도록 한다.

주름판의 한쪽면은 드레스의 어깨와 진동솔기에서 파이핑과 함께 박혀지며, 또 한쪽은 앞 중심 가운데에서 박혀짐으로 고정된다. 중심의 솔기선은 가장자리가 파이핑으로 장식된 긴 타원형판으로 정리된다. 드레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파이핑은 드레스의 모든 솔기 부분과 목선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장식의 효과를 더해준다.

소매에는 주름을 위·아래로 잡아 양쪽에서 당겨 만든 약 2"폭의 부일론(Bouillon)¹⁷⁾ (그림 6 참조)을 달아준다.

그림 6은 부일론의 제작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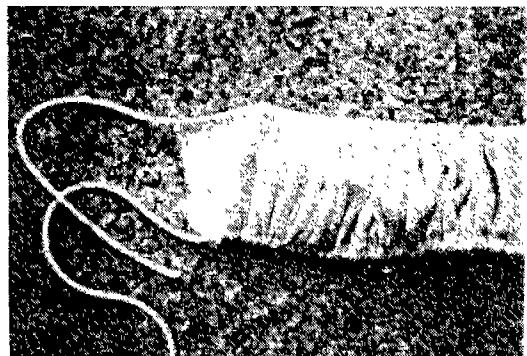


그림 6. 부일론

16) 라사라, 「복식사전」 : 라사라 교육 개발원, p.622

17) 부일론(Bouillon) : 원하는 디자인의 넓이에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한 옷감의 양쪽 가장자리에 끈을 넣어 굽게 흘칠한 후, 양쪽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분량만큼 잡아당겨 부풀은 주름끈 장식으로 만든 것. 일명 두시 장식(Ruched Trimming : Janet Arnold, op. cit., p.66)이라고 함.

2. 1882~3년 디너 드레스

① 스타일 분석

디너 드레스(그림 7, 8 참조)는 몸의 곡선을 드러내도록 밀착된 바디스, 바디스에 이어져 힙(Hip)의 양 측면으로 늘어지면서 뒷 중심에 고정되는 오버-스커트(Over Skirt), 바디스의 뒷쪽 힙 부분에 부착되어 길게 펼리는 트레인(Train), 앞면은 부풀림이 전혀 없이 허리에서 단까지 직선 상태를 유지하며, 뒷부분에 주름을 모은 언더-스커트(Under Skirt)로 구성된 투피스(Two Piece)이다.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는 힙을 부풀리고 강조한 형태로서 1880년대 전반에 나타난 버슬 스타일(Bustle Style)로, 원 위치로 환원된 어깨점, 이전 시대보다 낮게 파인 진동둘레, 팔에 꼭 끼는 짧은 2-피스의 셋-인(SetIn) 소매, 바디스의 앞 중심에 있는 단추로 채우는 트임 형식은 여성 의상에 있어 남성복 요소의 도입을 찾아볼 수 있다. 망사 프릴(Frill)로 목까지 장식한 높이 솟은 목선도 이 시기 의상의 특징이다.



그림 7.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C 1882-3)



그림 8. 재현 제작에 의한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

그림 7은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의 뒷면과 앞면의 스타일로 그 원형은 「The London Museum」¹⁸⁾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8는 재현 제작에 의한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이다.

② 색상과 소재 분석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상인 아이보리(Ivory) 색을 사용하고 있다. 언더 스커트는 크림(Cream) 색을 사용하여 그 위로 겹겹이 총을 이룬 아이보리 색 레이스(Lace) 장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색상에 있어서는 단색을 사용한 것에 비해 소재는 여러 종류의 소재를 사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걸감으로는 바디스에 $3/8"$ 폭에 $1/16"$ 굵의 새틴(Satin) 줄무늬가 있는 실크, 언더 스커트에는 골지게 짠 고운 실크를 사용하여, 그 위로 물방울 무늬가 있는 넷(Net), 자수가 놓여진 넷, 새틴을 조화시켜 장식하고 있다.

안감에 아이보리 색상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형성하고 유지시킨다. 바디스의 안감에

18) Janet Arnorld, 「Patterns of Fashion 2」,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80, p.36.

는 능직으로 짜여진 실크와 뒷판을 평평하게 고정 시키도록 한 타페타(Taffeta), 소매 부분은 올이 고운 실크가 사용된다.

③ 패턴과 바느질법 분석(표 3 참조)

후기 빅토리아 시기의 디너 드레스는 초기 빅토리아 시기의 드레스가 단순한 구조를 지닌 반면, 매우 복잡한 패턴 구조를 지닌다.

앞 바디스는 중앙에 단추를 이용한 트임에 의하며 2 피스로 분리된다. 상체 부분의 2-다아트는 허리에서 턱(Tuck)으로 처리되고 패턴 끝부분의 턱과 연결되어 훠 양쪽으로 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며 뒷중심에 고정된다. 이것은 상체 바디스에 이어진 오버 스커트가 된다(그림 9 참조).

패턴에 있어 목선은 사각으로 깊게 파혀졌으나, 그 위에 여러가지 장식을 얹혀 표면적으로 앞은 V형, 뒤는 높이 솟은 목선을 이룬다.

칼라(Collar)는 컨버터블(Convertible) 칼라 형식이며, 바이어스(Bias)로 재단된다.

뒤 바디스에는 중심 절개선과 2개의 프린세스 라인이 있다. 훠 아래 중심 부분에서 22"의 분량을 4"로 주름을 모아 뒤로 길게 끌리도록 만든 트레이인 이 부착된다. 이것 또한 오버 스커트 역할을 한다.

앞의 2-다아트, 뒤의 2개의 프린세스 라인과 함께 바디스 양쪽에 부착되는 허리밴드는 몸에 밀착 되도록 하여 여성의 몸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그림 10 참조).

어깨점은 제 위치에 있으며, 어깨 솔기는 약간 뒷쪽으로 넘어가 여성의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한다.

소매는 텁·언더 소매로 이루어진 2 피스 셋인 소매이며, 그 길이는 팔 길이의 $\frac{3}{4}$ 이다.

언더 스커트는 고어드 스커트(Goared Skirt) 패턴을 지니며, 3 곳에 솔기선이 있다. 앞면의 프

린세스 라인과 측면의 솔기선을 이용하여 허리에서부터 훠까지는 부드럽게 몸매의 곡선을 살려주며, 트임은 뒤 오른쪽 프린세스 라인에 둔다. 그 아래부터 단까지는 패턴의 구조에 있어 사선 처리되어 단 부분에 여유를 준다. 특히 뒷면의 단부분은 길게 끌리는 트레이인과 함께 연결시키기 위해 연장된 패턴 구조를 지닌다. 뒷 허리 중심에는 충분한 주름 분량을 (11 $\frac{1}{4}$ " 분량을 2"로 잡음) 둈다. 이러한 스커트를 앞면은 직선으로, 뒷면은 부풀은 모양으로 길게 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식의 패티코트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패턴의 구조상 앞 측면판과 뒤 측면판에 끈(Tape)(그림 11 참조)을 고정시킨 후 뒤 중심 부분으로 천을 끌고 와 끈을 묶으므로써 버슬 스타일을 만들어 준다(그림 12 참조).

트레이인과 언더 스커트는 패턴트 흑(Patent Hook)과 아이(Eye)로 연결된다. 오버 스커트의 단은 앞에서는 직선을 유지하며, 뒤로 갈수록 퍼지게 하기 위해 걸감 안쪽에 약 6" 폭의 심을 댄다. 이 심은 바이어스로 재단된 넌스 벨링(Nun's Veiling)을 안쪽에 넣고 얇은 베크램(Buckram)¹⁹⁾을 그 위로 둘러 쌓 것이다. 그 위에는 발리유스(Balayeuse)를 댄다. 발리유스는 2" 폭의 자수 놓인 넷으로 테를 두른 4 $\frac{1}{2}$ " 폭의 오간디(Organ-die)로 만든 프릴(Frill)이다.(그림 13 참조)

이 시기에 있어 바느질법은 1846년 Elias Howe의 록-스티치 머신(Lock-Stitch Machine)의 발명 특허, 1851년 Issac Merritt Singer의 보다 발전된 록-스티치 머신의 발명 특허 이후 계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1860년대에 들어서는 모든 드레스에 부분적으로 기계 바느질이 되었으나, 세기 말까지도 끝처리는 손으로 하였다.²⁰⁾ 이 드레스도 부분적으로는 재봉틀을 이용하나, 솔기 시접의 휘감치기와 그 밖의 장식물 부착, 주름 고정 및 끝처리는 손바질로 한다. 드레스에는 기계자수가 놓여진

19) 베크램(Buckram) : 접착제나 풀이 스며들여진 올이 굽게 짜인 린넨(Linen)으로 만든 매우 뻣뻣한 직물
: Penelope Byrde, 「Nineteenth Century Fashion」, B. T. Batsford Limited, London, 1992, op. cit. p.182.

20) Ibid. p.143



그림 9. 디너 드레스의 오버 스커트 고정법



그림 10. 디너 드레스의 내부도



그림 11. 디너 드레스의 측면에 부착되는 끈



그림 12. 언더 스커트의 형태 고정법

넷을 사용한다.

그림 9는 뒷면에서 오버 스커트를 고정시키는 바느질법으로, 앞 바디스와 이어져 허 양 측면에 주름을 만들며 턱을 정리시킨 단에 있는 두 개의 끈으로 묶여진다.

그림 10은 디너 드레스의 내부도이며, 이것은 내부에 부착 되어진 허리밴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버슬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한 측면에 부착된 끈이다.

그림 12은 끈으로 묶여져 완성된 언더 스커트의 뒷면으로, 뒤로 끌리는 단선이 특징이다.

그림 13은 넓게 퍼진 트레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층으로 구성된 단의 처리 방법을 보여준다.

④ 장식 기법 분석

잔 주름을 잡은 자수 놓인 넷을 목선에 두르고 그 위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넷을 주름잡아 주머니 모양이 되도록 고정시키며, 첫번째 단추 윗 부분에 새틴으로 만든 나비매듭을 달아 목부분을 화려하게 강조한다. 소매단 부분은 주름 잡은 자수 놓이 넷과 그 위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넷으로 장식하고 연결 부분에 새틴의 나비매듭을 단다. 뒷 바디스와 트레인이 만나는 지점 아래에 폭이 넓고 긴 새틴의 나비매듭을 달아, 길게 끌리는 트레인



그림 13. 스커트의 단처리법

과 함께 디자인의 균형을 맞춘다. 스커트 앞면은 하나의 장식이 3번 반복되며, 한 단의 구조는 스컬럽(Scallop) 단선을 지닌 무거운 자수가 놓인 넷 층 아래에 $3\frac{3}{8}$ 폭의 주름 잡은 자수 놓인 넷을 손바늘질로 연결시켜 달아 준 후 그 안쪽에 $3\frac{1}{4}$ 폭의 새틴 부일론을 약 1" 보이도록 고정시킨다.

3. 1895년 데이 드레스

① 스타일 분석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의 여성 의상은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하여 단순하게 변화되어졌으며, 고



그림 14.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C 1895)



그림 15. 재현 제작에 의한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

어드 스커트(Gored Skirt)는 이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체의 가슴과 소매 부분이 강조되어지면서 외상 디자인의 강조 부분이 하체 부분에서 상체 부분으로 전환되어졌다.

이 드레스(그림 14, 15 참조)는 몸에 꼭 맞으면 서 앞 중앙에만 세로 주름을 주며니 모양으로 주름 잡아 가슴 부분이 부풀어 보이게 하며 팔꿈치 위 부분을 부풀린 지고(Gigot) 소매가 달린 바디스와 정면에서는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고 뒷 중심에서 주름을 잡은 고어드 스커트가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한 V자형의 허리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2-피스형으로, 정면에서는 아우어글라스 스타일(Hour Glass Style)을, 측면에서는 S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14는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의 뒷면과 앞면의 스타일로 그 원형은 「The Gallery of English Costume」²¹⁾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5는 재현 제작에 의한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이다.

② 색상과 소재 분석

드레스의 주색상은 얇은 자주색(Mauve)과 은회색(Silver Grey)을, 장식 색상으로는 보라색(Purple)을 사용한다. 주소재는 $1/8"$ 직경의 보라색 반점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실-프린트(Warp-Printed) 되어진 타페타를 사용하며, 그 외 장식 부분인 커프스(Cuffs),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탑 칼라, 허리밴드, 어깨 위의 왕(Wing), 나비매듭 모두에는 벨벳(Velvet)을 사용하고 있다. 이 드레스는 이전 드레스에 비해 색상과 소재 면에서 이색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외상 디자인의 단순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식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바디스, 왕, 탑 칼라의 안감으로는 회색 새틴, 스커트에는 능직의 새틴, 허리밴드와 나비매듭, 커프스에는 타페타를, 스탠딩 칼라에는 능직의 면

을 사용한다.

이 드레스에서는 아우어 글라스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 부분에 직물 대신 종이로 안감을 사용하여 부풀림과 뺨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허리에서부터 단까지 사선으로 펴진 고어드 스커트의 뾰족한 형태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결감과 안감 사이에 안심을 넣는다.²²⁾ 이것은 뾰족하고 중량이 나가는 압지와 비슷한 접착 직물이다.

왕과 스탠딩 칼라, 허리 밴드, 커프스에도 안심을 넣으며, 소재로는 버크램을 사용한다.

③ 패턴과 바느질법 분석(표 3 참조)

이 드레스에는 결감과 안감에 사용하는 서로 다른 바디스 패턴이 있다. 안감을 위한 뒷 바디스 패턴에는 중심 절개선과 측면에 2개의 프린세스 라인이 있다. 안감을 위한 앞 바디스 패턴에는 절개선이 없으며 허리선에 많은 양의 2-다아트와 중심선 중앙에 작은 1-다아트가 있다. 이 다아트는 가슴 부분을 보다 입체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트임은 앞 중심선에 주며, 교차적으로 혹과 아이를 달아 낸단 없이 고정시킨다. 결감을 위한 앞 바디스 패턴에는 절개선이나 다아트가 없으며, 중심 부분에 $8\frac{1}{2}"$ 분량을 $2\frac{1}{2}"$ 폭으로 잡아 당겨 주머니 모양의 세로 주름이 생기도록 여유 분량이 있다. 바디스를 스커트 아래로 넣어 입은 다음 그 위에 허리 밴드를 한다. 이때 앞 바디스의 주름 잡은 부분이 허리 밴드 위로 부풀어 얹히게 하기 위해 앞 바디스 패턴의 허리 아래 부분에 약 $1\frac{1}{4}"$ 폭의 단이 연장되어 있다. 뒷 바디스 패턴은 허리 밴드와 만나는 부분이 몸매에 흐르는 선을 따라 매끄럽게 정리되도록 허리선에서 연장된 부분을 지니며, 뒷 중심선에 1"의 술릿(Slit)을 준다.

네코라인은 등골며, 약간의 여유분만을 두고 제목선에 위치하도록 하며 하이-스탠딩 칼라(Hi-Standing Collar)가 달린다. 그 위로는 장식

21) Janet Arnold, op.cit., p.46

22) Janet Arnold, op.cit., p.46

적인 탑 칼라가 달리며, 탑 칼라와 웹, 커프스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장식적인 허리 밴드를 위한 패턴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허리에 걸쳐지도록 한 V자형이며, 안쪽의 허리밴드는 허리를 더욱 가늘게 조이도록 한다.

지고 소매를 위한 패턴에는 기본적으로 탑과 언더 소매로 이루어진 긴 소매가 그 바탕을 이루며, 그 위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사이로 소매의 웃부분을 넓게 부풀리게 만드는 확대된 소매 패턴 있다.

앞면은 평평하게 사선을 이루며 펴지고, 뒷 중심이 부풀은 고어드 스커트의 패턴에는 굽선으로 이어지는 앞 중심선에서부터 절개 되는 뒷 중심선 까지는 2개의 프린세스 라인과 옆선에 의해 전체 5-피스로 구성된다. 그 형태는 허리에서부터 훑웃 부분까지는 몸매에 흐르는 선을 사용하며, 스커트의 단으로 내려올수록 사선이 되어 삼각형을 이룬다. 단, 뒷 중심 부분에는 많은 양의 주름 분량을 준다. 뒷 중심 부분에 주름을 고정시키기 위해 스커트의 안쪽 면에 단단하게 짜여진 탄력 있는 끈을 부착시킨다. 이때 바느질선은 주름의 접힌선 사이로 통과 시켜 겉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한다. 스커트의 트임은 뒷 중앙에 있다. 옆선 웃부분에는 주머니가 있다.

④ 장식 기법 분석

이 드레스는 본관과 다른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어깨를 강조하는 웹, 19°의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V자형의 허리 밴드, 밴드 뒷중심에 얹히는 나비매듭, 커프스와 탑 칼라를 부착하여 장식 효과를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삼각형 모양으로 스커트 형태와 함께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이 드레스에서도 장식의 가장자리에는 회색 새틴의 $1/8''$ 파이핑으로 처리한다.

V. 빅토리언 드레스의 비교 분석

빅토리언 드레스의 제작과정 및 실제를 통하여 각 드레스의 특징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시기별 드레스의 특징을 스타일, 색상과 소재, 패턴과 바느질법, 장식기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1. 스타일의 비교분석

〈표 1〉 빅토리언 드레스의 스타일 비교분석

연대	1839~1845년 드레스	1882~1883년 드레스	1895년 드레스
스타일	아우어글라스 스타일	버슬 스타일	아우어글라스 스타일
드레스용도	데이 드레스	디너 드레스	데이 드레스
구성 형식	원피스형	투피스형	투피스형
상의			
바디스	· 몸에 꼭 맞는 형태	· 몸의 곡선을 도러내도록 밀착된 형태	· 몸에 꼭 맞는 형태
목 선	· V자형의 깊게 파인 목선	· 앞 : V자형 · 뒤 : 높이 솟은 목선	· 등근 목선
트 임 기 타	· 뒷 중심 부분 · 앞 중심의 대각선 주름판	· 앞 중심 부분 · 바디스에 이어진 오버스 커트 · 뒤쪽 허부분에 부착되어 길게 늘어진 트레인	· 앞 중심 부분 · 앞 중심의 주머니 모양의 세로 주름
칼라	-	· 컨버터블 칼라	· 스탠딩 칼라
소매	· 2-피스의 긴 직선 소매	· 2-피스의 짧은 직선 소매	· 지고 슬리브 : 2-피스의 언드슬리브
하의			
스커트	· 등 형태의 주름 스커트	· 고어드 스커트 - 앞면 : 허리에서 단까지 직선 형태 - 뒷면 : 뒤 중심에서 주름 잡음	· 고어드 스커트 - 앞면 : 허리에서 단까지 사선 형태 - 뒷면 : 뒤 중심에 주름잡음
허리선 단 선	· V자형	- · 오버스커트 역할을 하는 트레인과 함께 뒤쪽으로 길게 늘어짐	· V자형

2. 색상과 소재의 비교 분석

〈표 2〉 빅토리아 드레스의 색상과 소재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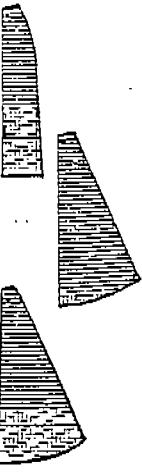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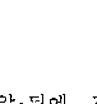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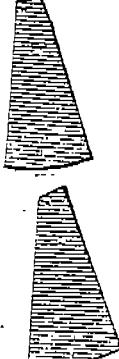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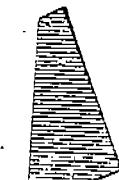
연 대		1839-1845년 드레스		1882-1883년 드레스		1895년 드레스	
전체적 특징		진한 베이지의 은은한 색조를 지니고 부드러운 광택 처리를 한 실크와 캐시미어의 혼방 직물		3/8" 폭에 1/16" 깊의 새틴 줄무늬가 있는 아이보리색 실크		자주색과 은회색을 따며, 1/8" 직경의 보라색 반점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실-프린트 되어진 타페타	
색 상		기본색	강조색	기본색	강조색	기본색	강조색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자주색과 은회색	보라색
구 성 별 감	결 스커트 소 매 기 타	바디스 -	베이지색 -	아이보리색 크림색 아이보리색		자주색과 은회색 -	보라색 -
	안 스커트 소 매 기 타	바디스 -	하얀색 -	아이보리색 -		회색 진회색 커프스, 나비매듭 밴드, 허리밴드, 탑질라, 왕-회색	
	결 스커트 소 매 기 타	바디스 -	하얀색 -	아이보리색 -		커프스, 나비매듭 밴드, 허리밴드, 탑질라, 왕-회색	
	소 매	실크와 캐시미어의 혼방 직물	면, 머슬린	새틴 줄무늬가 있는 꽃게 짠 실크	타페타, 물방울 무늬의 넷, 자수 놓인 넷, 새틴, 오간다, 넌스 베일링, 베크램	타페타	벨벳, 새틴, 능직의 새틴, 능직의 면, 베크램
구 성 별 감	결 스커트	바디스 -	실크와 캐시미어 혼방 직물	새틴 줄무늬가 있는 실크	물방울무늬의 넷, 자수 놓인 넷, 새틴, 줄무늬가 있는 새틴, 자수 놓인 넷, 타페타, 넌스 베일링, 오간다,	타페타	벨벳
	소 매	-		꽃게 짠 실크	타페타, 넌스 베일링, 오간다,	-	허리 밴드: 벨벳
	소 매	-		새틴 줄무늬가 있는 실크	새틴, 자수 놓인 넷	-	벨벳
안 별 감	안 스커트 소 매	바디스 면 머슬린 광택이 나는 면	능직의 실크 올이 고운 실크	올이 고운 타페타, 넌스 베일링, 베크램	새틴 능직의 새틴 종이	비코램 압지와 간은 접착 직물 커프스: 비코램 왕: 베크램, 새틴	비코램 압지와 간은 접착 직물 커프스: 비코램 왕: 베크램, 새틴

3. 패턴(Pattern)과 바느질법의 비교 분석

〈표 3〉 빅토리아 드레스의 패턴과 바느질법 비교 분석

연 대	1839-1845년 드레스		1882-1883년 드레스		1895년 드레스	
	패 턴	바느질법	패 턴	바느질법	패 턴	바느질법
바디스 앞	P ²³⁾ 형태	P 형태	P 형태	P 형태	P 형태	
\ 앞 굽선	1	·손바느 질 ·솔기 시접 처리법 :취감 치기	1	·재봉틀 사용 ·부분적 으로 손 바느질	1	·걸감 안감
\ 중심절개선 \ 앞 굽선 \ 다아트 \ 목 선 \ 트 임	있다. 2-다아트 V자형	·걸감파 안감은 함께 박 음	있다. 2-다아트 깊게 파인 직사각형 있다(단추)	·솔기 시 접, 장식 물 부착, 주름고정 끌정리	있다 없다. 등근목선 있다(혹 과 아이)	있다 3-다아트 등근목선 과 아이)
뒤	2	·정리된 솔기위에 는 옷감 으로 쌓 1/2"의 본을 땜	3	·걸감과 안감을 함께 박 음 ·본 부착	2	·걸감 안감
\ 중심절개선 \ 뒤 굽선 \ 다아트 \ 프린세스라인 \ 트 임	있다 1-라인 있다(혹과 바)	있다.	2-라인		있다 1-라인	있다 2-라인
소매	2 탑 언더	·목선과 소매단의 솔기 처리는 파이핑을 이용.	2 탑 언더		2 탑 언더	
\ 길 이 \ 소매단슬릿	길다 있다	소매 길이의 3/4			길다 있다	
칼 라	없다	1 직사각형			1 스탠딩 칼라 1 탑 칼라	
허리 밴드 걸 안	-	1 있다			1 있다. V자형 1 있다	

23) P : 패턴 갯수

기타	1 주름판(2-다아트)  1 긴 타원형판  2 소매 장식 탑  언더 	1 트레이 	1 윙 1 커프스 				
스커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마폭 연결: 겉·안감을 함께 박음 주름 : 1/8"의 카트리지 허리부분 처리법: 허리 부분에 남은 솔 기를 같이 접어 주어 숨어 박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넷의 연결: 손바느질 	5 	• 뒷판 안쪽 중심부분에 잡혀진 주름을 고정시키기 위해 고무끈을 그 주위에 부착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정리: 안감에 대어진 외형의 얇은 층을 덧댐 그 위로 본감의 바이어스 디리를 두릅. 뒤쪽 좌판에만 3/4"여밈단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정리: 바이어스로 재단된 넌스 베일링을 안쪽에 넣고 얇은 버크 램으로 둘러쌈. 바로 위에는 발리유스를 냅. 풀라켓 뒤쪽 좌판에만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정리: 3/4" 폭 벨벳을 바이어스 재단하여 단주위로 투름. 풀라켓: 뒤쪽 좌판에 단 부착 	
\앞꽃선 \앞걸개선 \뒤꽃선 \뒤걸개선 \프린세스 라인절개 선 \옆선 \트임 \주머니 \끈 \고무끈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앞·뒤에 각각 하나씩 이용 있다. 뒷면 좌판의 프린세스 라인	있다. 있다. 있다- 앞면: 1개 - 뒤면: 2개 뒤 중심선 있다- 2개 있다- 2개	있다- 3개	13 패 면	13 패 면	22 패 면

4. 장식기법의 비교 분석

〈표 4〉 빅토리언 드레스의 장식기법 비교분석

연 대		1839~1845년 드레스	1882~1883년 드레스	1895년 드레스
부위별		사용된 장식	사용된 장식	사용된 장식
바 디 스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 부분: 주름판과 긴 타원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선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진 자수 놓인 넷 - 주머니 모양으로 된 물방울 무늬의 넷 - 나비 매듭 · 단선:주름진 자수 놓인 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부분:삼각형 단선의 탑칼라 · 탑칼라의 가장자리:파이핑 · 어깨부분:왕 · 허리 부분:V자형 허리밴드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기선, 목선 가장자리, 원판 가장자리, 허리선:파이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훑 아래 부분:나비 매듭 · 트레이너 가장자리:주름진 자수놓인 넷과 스컬럽 단을 지닌 무거운 자수놓인 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부분:나비 매듭
칼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버터블 칼라 가장자리:파이핑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꿈치 윗 부분:2줄의 가로장식띠(가운데 부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진 자수 놓인 넷 - 주머니 모양의 물방울 무늬의 넷 - 나비매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단:삼각형 단선의 커프스 · 커프스의 가장자리:파이핑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커트 앞 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진 자수놓인 넷과 스컬럽 단을 지닌 무거운 자수놓인 넷 - 부일론 	

VI. 결 론

실물 제작 연구를 통하여 3별의 빅토리언 드레스가 여러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졌으며, 특히 스타일, 색상과 소재, 패턴과 바느질법, 장식기법에 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각 드레스의 설계 및 외장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스타일 :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는 둡 형태와 직선 소매를 지닌 초기 크리놀린 스타일이고,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는 훑 부분의 뒤쪽을 부풀린 베슬 스타일이며,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는 고어드 스커트와 지고 슬리브를 지닌 아우어글라스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한시대 동안

특징적인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색상과 소재 : 초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는 단색의 소재 한가지로 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 것은 X자형의 형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후기 빅토리언 디너 드레스는 단색 사용에도 불구하고 디너 드레스임을 감안하여 여러 종류의 소재 사용을 함으로써 기교적인 장식 효과를 돋보이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후기 빅토리언 데이 드레스는 디자인의 단순성을 피하기 위해 두가지 색상과 소재 대비에 의하여 장식 효과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패턴과 바느질법 : 세별의 드레스 중 가장 복잡한 패턴 구조를 지닌 드레스는 후기 디너 드레스이며 초기와 후기 데이 드레스의 패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것은 데이와 디너 드레스의 용도 차이에서 베슬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한 허부분의 다층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느질법에 있어서는 현대의 결감과 안감의 분리식이 아닌 통합식으로 나타난 점, 장식의 부착과 끝마무리 작업 과정이 손바느질로 이루어진 점, 본의 부착으로 몸매를 드러내고 밀착시킬 수 있었던 점, 장식 효과를 주기도 한 파이핑이 목선과 소매단과 같은 가장자리의 시접 처리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식 기법 : 후기 데이 드레스는 장식이 간단한데 비하여 후기 디너 드레스는 많은 장식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징적인 장식으로 초기 데이 드레스에는 긴 타원형이 달린 주름판과 부일론이 달린 장식단을, 후기 디너 드레스에는 부일론과 주름잡힌 넷으로 이루어진 장식단과 나비매듭을, 후기 데이 드레스에는 파이핑을 가장자리에 댄 탑칼라, 원, 커프스와 나비 매듭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세가지 드레스의 공통적인 장식 기법은 파이핑이며 초기 데이 드레스와 후기 디너 드레스에는 부일론이, 후기 디너 드레스와 후기 데이 드레스

에는 나비 매듭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스타일에 있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와 디너 드레스의 용도 차이로 인하여 초기·후기 데이 드레스에 비해 후기 디너 드레스가 색상과 소재, 패턴 구조와 바느질법, 장식 기법 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후 연구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설정 되어진 기준에 의한 색상과 소재 선택이 필요하며, 부속품 및 악세서리가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위의 결과는 모두 실물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분석되어진 것으로 이러한 차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실물 제작 연구 I²⁴⁾ · II」에서 얻어진 자료는 의복의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장식까지 의복 생산의 전 분야와 의류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의복 설계를 지향하는 후예들에게 보다 발전적인 연구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연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진정한 참여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져야 하며, 좀더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인 작업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4) 김문숙·오현남,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I)－후기 빅토리언 드레스(Victorian Dress)의 설계 및 의장 분석」 :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 연구소 자연과학 연구 논문집, pp.15~29.